참선·요가…산사서 맞는 특별한 새해

전남·전북지역 사찰 새해맞이 템플스테이

2016년 병신년이 어느덧 이틀 앞으로 다가왔다. 새해 첫날을 특별하게 보내고 싶지만 각 지역 명소들을 찾아가자니 밀려드는 인파 때문에 고생길이 훤하다. 조용히 새해 아침을 맞으며 신년 계획을 세우고 싶다면 사찰에서 하룻밤을 묵는 템플스테이가 괜찮을 듯 싶다. 한국불교문화사업단이 전국에 있는 절 50여 곳에서 펼쳐지는 템플스테이 프로그램을 29일 소개했다.

해남 대흥사, 탑돌이·스님과의 대화
강진 백련사, 떡국 먹고 강진만 해맞이
고창 선운사, 윷놀이에 작은 음악회도

■ 새해맞이 템플스테이

이름	내용	주소
미황사	108배, 참선, 다도, 새해 타종체험, 달마산 산행, 떡국 먹기	전남 해남군 송지면
백련사	떡국먹기, 강진만 해맞이	전남 강진군 도암면
불갑사	해맞이 일출보기, 떡국 먹기, 차담, 소원지 쓰기, 108명주 만들기	전남 영광군 불갑면
송광사	108배, 떡국 먹기, 해맞이 산행, 불일암 참배	전남 순천시 아산면
쌍계사	108배, 산행(해돋이), 떡국 먹기	전남 순천시 송광면
쌍봉사	108배, 나에게 편지 쓰기, 떡국 먹기, 단청 체험, 해맞이 산행, 스님과의 차담, 새해 타종체험	전남 진도군 의산면
천은사	지리산 산행, 스님과의 차담	전남 구례군 광의면
화엄사	해맞이, 스님과의 차담, 서원 세우기, 명상	전남 구례군 마산면
대흥사	스님과의 차담, 새해 타종체험, 떡국 먹기, 해돋이	전남 해남군 삼산면
내소사	명상, 법문, 새해 타종체험, 스님과의 명상 및 차담	전북 부안군 진서면
선운사	윷놀이, 소원지 만들기, 새해 타종체험, 108배, 포행	전북 고창군 이산면
금산사	모악산 해맞이, 떡국 먹기, 소원지 쓰기, 명상, 스님과의 대화	전북 김제시 금산면

해남 대흥사 새해맞이 템플스테이에서 참가자들이 연등을 들고 소원을 빌고 있다. 〈대흥사 제공〉

순천 송광사는 31일 오후 3시 사찰 예절을 배우는 습의(習儀)를 시작으로 저녁 예불, 법문 등을 진행한다. 1일에는 망수봉에서 새해맞이 산행을 하고 불일암 참배가 진행된다. 문의 061-755-5350.

해남 대흥사는 31일부터 2박3일간 각종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1일 새벽 1시까지 저녁 법회, 탑돌이, 새해 타종 등을 운영한다. 또 스님과의 대화와 오감을 깨우는 새벽 명상, 요가 수련, 두륜산 북미륵암 산행 등을 통해 심신을 정화하는 시간을 갖는다. 문의 061-535-5775.

미황사는 108배, 참선, 다도, 새해 타종 체험 등 운영한다. 참가자들은 새해 첫날 떡국을 나누며 인근에 위치한 달마산 산행을 할 예정이다. 문의 061-533-3521.

강진 만덕산 자락에 위치한 백련사는 떡국 먹기 외에도 강진만에서 해맞이를 준비했다. 인근에 위치한 다산초당을 거닐며 정약용의 발자취를 느낄 수도 있다. 문의 061-432-0837.

영광 불갑사에서는 새해 해맞이를 비롯해 떡국먹기, 차담을 준비했다. 또 참가자들은 소원종이 쓰기, 108염주 만들기 등 각종 체험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다. 문의 061-352-8097.

첨찰산으로 둘러싸인 진도 쌍계사는 1일 새벽3시부터 108배 및 명상으로 새해를 맞는다. '새벽별 보고 소원등 날리기', 숲속 걷기, 스님과의 대화 등을 통해 일상에 지친 심신에 휴식을 준다. 문의 061-542-1165.

국보57호인 철감선사 부도탑을 만날 수 있는 화순 쌍봉사는 새해 첫날 108배를 시작으로 타종 체험, 해맞이 산행 등이 이뤄진다. 또 스님과의 대화, '나에게 쓰는 편지' 등 사색의 시간을 갖고 기와에 각종 연꽃무늬를 그려보는 단청 체험으로 특별한 분위기를 느낄 수 있다. 문의 061-372-3765.

구례 화엄사는 지리산에서의 해맞이를 마련했다. 참가자들은 1일 새벽 3시 새벽예불을 올리고 4시부터 사성암 산행을 한다. 사성암에서 해맞이 법회 및 일출을 보고 떡국 공양 후 하산할 예정이다. 체온 유지를 위해 따뜻한 옷은 필수다. 문의 061-782-7600. 화엄사와 마찬가지로 지리산에 자리잡은 천은사에서도 지리산 산행 및 스님과의 차담이 진행된다. 단 대학생 이상만 참여할 수 있다. 문의 061-781-4800.

전북 사찰에서도 새해맞이 템플스테이가 진행된다.

고창 선운사에서는 31일 윷놀이, 소원지 만들기, 108염주 만들기, 작은 음악회 등이 열린다. 제야의 종 타종으로 2015년을 보내고 2016년을 맞는다. 오전 6시 아침공양 후 도솔암 포행 및 천마봉 해맞이를 진행한다. 문의 063-561-1375.

부안 내소사는 명상, 법문, 새해 타종체험, 스님과의 차담이 진행되고 김제 금산사는 모악산 해맞이, 소원지 쓰기, 명상 등을 마련했다. 문의 내소사 063-583-3035. 금산사 063-548-0048.

새해맞이 템플스테이 예약은 사업단 홈페이지(www.templestay.com)와 각 사찰 홈페이지에서 30일까지 할 수 있다.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덕후, 그들이 사는 세상

문화전당 지역산업 파급 효과 조망

광주일보 문화예술 전문 매거진

예향 1월호

다사다난했던 2015년 을미년(乙未年)을 마무리하고 새롭게 시작되는 2016년 병신년(丙申年)에도 광주일보 문화예술매거진 '예향'이 함께한다. 신년호의 문을 여는 특집은 '그들이 사는 세상, 덕후(마니아)' 이야기다. 혼자만의 세계에 파묻혀 있던 부정적인 이미지를 딛고 특정 분야에서 전문성을 인정받게 되며 하나의 사회현상으로 떠오른 '덕후 문화'를 살펴보고 다양한 '덕후'들의 세계를 들여다봤다.

신년기획 '아시아문화전당에 희망을 묻다'에서는 2016년부터 사실상 본격 운영에 들어가는 아시아문화전당의 대표 기관인 문화창조원과 어린이문화원의 콘텐츠를 중심으로 지역산업 파급효과를 짚어보고 향후 과제를 점검해본다. 또 다른 기획 '전문가가 본 2016 10대 키워드'를 통해서는 '플랜 Z'와 '과잉근심사회'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살펴본다.

예향 초대석의 주인공은 판화로 시(詩)를 쓰는 이철수 판화가다. 그는 지난 3년간 원불교 '대종경' 지혜 말씀을 목판에 새겨 최근 광주에서 전시회를 열기도 했다. 충북 제천에서 농사를 지으며 자기성찰과 생명의 본질에 대한 관심으로 영역을 넓혀가고 있는 그를 만나 작품세계를 들어봤다.

새해부터 새롭게 시작한 '남도 미미락(美味樂)' 코너는 남도 지역의 멋과 맛과 흥을 찾아 떠나는 연중 기획시리즈로 첫 번째 여정은 완도에서 시작된다. 연중기획 '사람이 브랜드다'에서는 전통과 현대를 가로질러 공간을 창조한 예술가 김수근의 건축이야기와 서울 종로구 '공간사옥'을 둘러본다. 이외에도 60년째 전통화살을 만들고 있는 궁시장 김기 선생과 귀농 연극배우 이상직, 은퇴를 선언한 '빅초이' 최희섭 선수, 드라마 '애인있어요'를 통해 매주 여성팬들의 마음을 흔들고 있는 배우 지진희를 만나본다.

여행칼럼니스트 노중훈씨가 새롭게 시작하는 '꿈의 여행' 첫 목적지는 '꽃할배'가 다녀간 신들의 나라 그리스. 아테네와 산토리니는 물론이고 꽃할배들은 미처 몰랐던 낙소스까지 돌아보고 왔다.

/이보람기자 boram@kwangju.co.kr

정명훈, 서울시향 예술감독 사퇴

"음악 보다 인간애가 중요"…내년 공연 모두 취소

정명훈 서울시립교향악단 예술감독이 결국 서울시향을 떠난다.

정 예술감독은 29일 사의를 밝히고 서울시향 단원들에게 편지를 보내 예술감독을 그만두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특히 정 예술감독은 당초 청중과의 약속을 위해 지휘하기로 했던 내년 9차례의 공연도 모두 취소하겠다는 의사도 밝혔다.

정 예술감독은 편지에서 "저는 이제 서울시향에서 10년의 음악감독을 마치고 여러분을 떠나면서 이런 편지를 쓰게 되니 참으로 슬픈 감정을 감출 길이 없다"며 "제가 여러분의 음악감독으로서의 일을 계속할 수 없다는 것이 너무나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정씨는 부인 구모 씨가 박현정 전 서울시향 대표에 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도록 서울시향 직원들에게 지시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사실이 알려지고, 28일 이사회에서 재계약안이 보류되면서 시향을 떠나기로 마음을 굳힌 것으로 보인다.

정 예술감독은 편지에서 "제게 음악보다 중요한 게 한 가지 있으니 그것은 인간애이며, 이 인간애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는 여러분과 함께 음악을 계속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는 "단원 여러분이 지난 10년 동안 이룩한 업적이 이 한 사람의 거짓말에 의해 무색하게 되어 가슴이 아프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참신하고 기발한 광주 미술의 미래

우제길미술관 2월14일까지 청년작가 지원展

김은경 작 '동심'

우제길미술관에서 올해 마지막 전시회로 청년작가 지원전 '보내는 마음, 시작하는 별들'전을 2016년 2월14일까지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조선대학교와 호남대학교 졸업예정자와 대학원생들로 구성된 18명의 젊은 예술가들이 참여해 참신하고 기발한 작품들을 선보인다. 이들은 평면, 입체, 설치 영상미디어 등 다양한 장르를 출품해 광주 미술의 미래를 엿볼 수 있다.

참여작가로는 미디어 설치 김근화, 위영주, 조각 전민준, 서예 김지혜, 회화 강지수, 김윤서, 김은경, 김혜리, 박유림, 신우주, 엄유정, 장현유, 정혜민, 정혜원, 정훈희, 최나래, 최레미, 한유정 등이다.

강지수의 '발현', 김은경의 '동심' 등은 젊은 감각의 회화 작품으로 톡톡 튀는 개성이 느껴진다. 또 전민준의 'Humanity, iron'은 철사를 이용한 사람 형상의 작품으로 신선한 소재를 이용한 점이 눈에 띈다.

미술관 관계자는 "젊고 참신한 신인작가들의 앞으로 작품활동에 기대가 크다"며 "2016년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는 가운데 신인작가들의 다양한 작품들을 한눈에 가늠해볼 수 있는 좋은 기회다"고 전했다.

문의 062-224-6601.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